

2009년은 KISA 직원의 전문성 강화의 해

전 직원 · 직무 전문성 · 강화 · 교육 · 프로그램 · 마련



도시명	성명		[조회]												소속
성적	수료여부		주요												
문항													12		
경오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X		
1년-10년 = 6명, 11년-15년 = 8명, 또 각 학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문제풀이 및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	X	○	○	○	X	○	○	○	X		

문어맞 퀘스
 1.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것은?
 ○ 현대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것임.
 ○ 정보화라는 개념은 주로 환경사고의 개념이다.
 ○ 정보화라는 개념을 대표하는 일곱대다.
 V ○ 정보화라는 개념이란 산업에 기사가 나자 관련산업도가 향상된다.
 정보화라는 개념이란 산업에 기사가 나자 관련산업도가 향상된다.
 2. 다음 중 정근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최정근 포스텍의 사생
 ○ 가문 계승 및 포스텍의 사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배우자를 찾는데 투자하는 노력과 정성에 비해 그렇게 좋은 배우자를 유지, 관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한다. 조직의 경우도 똑같은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훌륭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채용절차를 거치지만, 막상 채용을 하고 나면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에 무관심해 좋은 인재가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거나, 조직 내에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이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할까?

장혁기 | 혁신기획팀 주임연구원, journey@kisa.or.kr

직원들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조직 내에서 비전을 찾으려면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까? 막연한 질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직원 개인이 각자 맡은 업무 속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업무 속에서 재미를 찾으려면 우선 그 일을 좋아해야 한다. 일을 좋아하려면 제일 먼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열정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존재해야 한다. 또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에서는 이런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총체적인 활동을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이라고 한다.

지 식 습 득 , 테 슷 트 통 해 검 증

그렇다면 KISA는 직원들의 역량 및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2009년에는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을까? 2008년이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체계에 대한 시범 적용기간이었다면 2009년은 본격적으로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간이라 요약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공통직무 역량의 향상을 위한 '전직원 전문성 강화 세미나'와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육위원회 주관의 '전문직무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전직원 전문성 강화 세미나'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기본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해 공통역량을 상향평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전직원 대상 월별 직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출장 및 외부 회의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도 녹화된 세미나 동영상을 통해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강연 종료 후에는 테스트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잘 습득했는지 측정한다.

시험으로 인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았지만 지난 1월 실시된 '웹 해킹 및 보안 세미나'의 경우 교육만족도 4.0/5점, 학업성취도 평균 83.4/100점으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으며, 직원들도 동료가 하는 강의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2월 악성 봇에 이어 3월 말에는 정보보호 관련 법 및 정책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 육 위 원 회 , 직 원 전 문 성 주 도

전문직무교육과정은 2008년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한 'KPE(KISA Professional Education)'의 커리큘럼을 구체적인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직원들이 보다 심도 있게 정보보호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KPE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과정으로 리더십, 기획, 대외협력, 연구개발 4개 분야, 인사, 재무, 경영전략 등의 경영지원 3개 분야, 정보보호 10개 분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KPE 커리큘럼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노사에서 4명씩 참여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 교육체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누구나 교육에 대하여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 회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번 교육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그동안 필요성을 느꼈으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부족했던 직원 전문성 확보에 대해 현실적인 논의와 해결책을 마련하고,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S**